현재 일본경제의 장점과 문제점

 21401784 정지훈

일본은 현재 명목 GDP(국내 총생산) 세계 3위의 규모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반일 감정의 영향으로 다소 일본을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일본은 세계 4위 수준의 무역 규모와 1억2천만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으로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을 제치고 미국과 중국 다음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는,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나라이다.

제 1차 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무역 흑자국이 된 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다시는 재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패망 하였었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자본으로 일본에서 군수 물자들이 생산되며 일본의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1980년대에는 미국의 GDP를 81%까지 추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버블경제 붕괴, 잃어버린 20년 등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일본은 2011년 중국에게 추월 당하기 전까지 미국 다음 가는 경제 대국이었고, 지금도 3위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의 특징

일본의 경제는 현재(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회복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4분기 이후부터 꾸준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성장의 요인들이 내수 회복세가 강해진 것, 외수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계속 커져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일본경제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된 것 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베노믹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란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디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아베 신조가 시행한 경제 정책을 말한다.

아베노믹스는 3개의 화살이라 불리는 통화공급확대, 적극적 재정운영, 구조개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 3가지의 목표가 노리는 하나의 목표는 엔화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었다.

아베는 취임 한달 만에 13조1000억엔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상하고, 시중 통화 공급량을 두배로 늘리는 대담한 양적완화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게 되어 유동성이 높아지고 엔화의 가치가 하락되었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되자, 세계시장에서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여 수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수입 물가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유치되었다.
2012년 기준 836만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8년 기준 3119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을 20년 내내 괴롭혀왔던 디플레이션과 마이너스 물가 상승이 서서히 극복되었다.

또한 2013년 10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나라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여성,노인 인력 활용 확대, 이민 완화 등 규제 개혁과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정립 한다는 거시적 구조 개혁 또한 실시하였다.

아베 신조가 이러한 대담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일본의 경기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고, 일본 주식 시장의 주가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하는 등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어 냈다.
또한 실업률 또한 2018년에 2.4를 기록하며 25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며 전혀 경제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던 일본이 드디어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에도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수입 물가 또한 급등해버린 것이었다.
물론 잃어버린 20년동안의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당장의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었다.
또한 아베노믹스가 과대평가 받고 있다는 비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2%로, 잃어버린 20년에 해당하는 1991년~2012년 까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0.9%에 비하면 투입한 자금 규모에 비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재정 지출은 지속 되니 빚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국내 총 생산의 250%에 육박하며 세계 1위이다.

현재 일본의 내수 경제의 성장이 멈췄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기업의 이윤을 상승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은 늘어나지가 않는다.
일본은 현재 완전히 멈춰 있는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보다 수출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 경제 성장에 있어, 수출과 대외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전파되며 일본의 경기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축소를 하였다.
일본의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7.8%, 전년 대비 27.8%가 하락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본의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일본을 떠받치는 수출 또한 18.5%나 감소 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꾸준히 밀어붙인 여행 장려 정책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완전히 멈춰버렸다.
일본 유력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는 일본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 하려면 최소 4년 이상은 소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도쿄올림픽 또한 1년 연기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연구소들은 도쿄올림픽 개최로 일본 GDP가 약 2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모두 무산되었고
선수촌 유지, 관리비, 경기 단체 대회 재 개최 경비 등으로 막대한 경제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

이렇듯, 최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4월 일본 정부는 일본 모든 국민들에게 10만엔을 지급 하는 등, 기타 국 대비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는 중이다.
또한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또한 추진 중이다.

2020년 8월, 아베 총리가 퇴임을 하고 스가 장관이 아베의 뒤를 이어 총리에 취임하게 되었다.
스가가 발표한 경제정책 일명 ‘스가노믹스’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면서도 아베노믹스와 달리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을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큰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닌 작은 목표를 이루며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실용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려고 하고있는 스가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일본의 경제를 살릴지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이다.